

# 국힘, 도로 '김기현 2기 체제'로...친윤 색깔은 희석

임명직 당직 7명 인선...이만희 사무총장·유이동 정책위의장

임명직 8명 중 5명이 수도권 출신...영남당 색깔도 열어져

김기현 "민심 전달 주도적 역할"...일각 "쇄신 부족" 목소리

16일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재편해 '김기현 2기 체제'를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의와 화상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어 김예지 지명직 최고위원,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 함경우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윤희석 선임대변인,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등 7명의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확정했다.

이번 인선의 특징은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비교적 적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이루겠다는 김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의 정책 구상을 이끌고 정부와의 조율을 위해 최전선에 나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3선 유이동 의원의 경우 과거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되기도 했던 인사다. 김 대표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연포당' 인사가 이번에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고 당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직을 맡은 재선 이만희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을 지냈으나 계파색은 없다는 평가다.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된 재선 김성원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은 초선 김예지 의원, 수석대변인을 다시 맡게 된 초선 박정하 의원 역시 계파 분류가 어려운 인사다.

수도권 인사가 전진 배치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그러면서 영남당 색깔도 많이 희석했다.

직전 임명직 당직자 라인에서는 8명 중 영남 인사가 박대출(경남 진주갑) 전 정책위의장·박성민(울산 중구) 전 전략기획부총장·박수영(부산 남구갑) 전 여의도연구원 원장·강대식(대구 동구을) 전 지명직 최고위원·강민국(경남 진주을) 전 수석대변인 등 5명에 달했다. 수도권 인사는 배현진(서울

송파을) 전 조직부총장이 유일했다.

그러나 '김기현 2기 체제'의 임명직 당직은 경기 팽택 유이동, 경기 동두천·연천 김성원, 경기 광주 갑 당협위원장 함경우,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윤희석 등 8명 중 절반이 수도권 인사로 채워졌다.

1970년대생 4명(유이동·함경우·김성원·윤희석)과 1980년대생 1명(김예지)이 기용되면서 임명직 당직자 평균 연령도 기존 58세에서 52세로 낮아졌다.

다만 상징성이 큰 사무총장직에 경북 영천·영도를 지역구로 둔 'TK' 이만희 의원이 임명된 것을 두고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았다면 '쇄신 의지'가 더 두드러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도부는 인적 쇄신과 함께 당정관계에서도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정·대통령실 관계에 있어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의지를 반영한 공천이 서울 강서구정장 보궐선거 패인 중 하나로 언급된 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강조'와 각종 인사 논란이 중도층을 떠나게 하는 데도 당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이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모습으로 전환하고 당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들리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비주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6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당정관계 변화를 언급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 당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대통령실도 이념이 아닌 민생과 정책에 방점을 찍는 국정 기초 변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기 지도부와 2기 지도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선출직 최고위원들도 이날 최고위에서 한목소리로 '변화'를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때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김기람 최고위원은 "민심이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하겠다"고 했고, 정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과감한 변화와 감동적인 기록된 포기가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日오염수 2차 방류 특이사항 없이 진행 중”

정부, IAEA 화상회의 브리핑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평가했다고 16일 우리 정부가 전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난주 한-IAEA 정보 메커니즘 이행을 위해 개최된 정기 화상회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IAEA는 회의에서 "삼중수소 농도, 오염수 유량, 해수 취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2차 방류가 특

이사항 없이 1차 방류와 유사하게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류수조 도장 팽창은 방류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관심을 두고 살펴야겠다"고 언급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지난 1차 방류 이후 비어있는 K4-B 탱크 군에는 아직 4차 방류 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AEA가 향후 교환·순환 및 시료 채취 시에 일회용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

## 尹 지지율 34%...5개월만에 35% 아래로

리얼미터...국힘 32%·민주 50.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

최근 30%대 중후반 수준에서 횡보하던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간 것은 5월 1주 차(34.6%)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p 오른 62.2%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10월 5~6일) 대비 4.3%p 내린 32.0%, 더불어민주당은 2.9%p 오른 50.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5월 1주 차(34.9%) 이후 5개월 만에 30% 초반대로 내려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를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2020년 4월 4주 차(52.6%)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대로 진입,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다. 무선(97%)·유선(3%) 조사를 병행했고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尹, 참모진에 “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더 강화” 지시

대통령실 “정책당정 더 활성화”

부처 민생 물가 안정 안전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진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분수정원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은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시에 대해 “우선은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당정협의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물가는 윤 대통령이 민생 경제 현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걱정하는 국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가 문제는 국제 유가 인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 내일부터 각 부처 장관이 소관 분야별로 민생 물가를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 전화문의 062)970-6000 |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주)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리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통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